

2022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22. 10. 29. (토) 10:30
장소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주최 경기도의회 · 경기도교육청
협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좌장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시간		소요 (분)	주요 내용	
부터	까지			
10:30	10:35	5	개회안내	김영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책지원팀장
10:35	10:50	15	축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지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
10:50	10:55	5	사진촬영	다함께
10:55	11:25	30	주제발표	장안석 건강한노동세상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연구원
11:25	11:45	20		한승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
11:45	12:25	40	토론	좌장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토론1 손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급식조리분과장		
		토론2 최진 불곡중학교 영양교사		
		토론3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토론4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토론5 윤태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장		
12:25	13:00	35	질의응답	토론참여자 질의응답

※ 행사내용 및 토론자 등은 의정활동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차례

주제발표 1

학교 급식 노동자의 육체적 작업부하 평가 등을 통한 배치기준 개선의 필요성	7
장안석_건강한노동세상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 2

급식조리노동자 배치기준 역사와 개선 필요성	25
한승현_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	

토론 1

배치기준 개선으로 급식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45
손경숙_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급식조리분과장	

토론 2

[현장 토론]	51
최진_불곡중학교 영양교사	

토론 3

토론문	55
구희현_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토론 4

인력배치기준을 포함한 학교급식실 노동 환경 척도를 개발하라	61
남궁수진_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토론 5

[현장 토론]	69
윤태호_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장	

주제발표 1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육체적 작업부하 평가_ 인력운영 개선의 필요성

장안석_건강한노동세상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연구원

학교 급식 노동자의 육체적 작업부하 평가 등을 통한 배치기준 개선의 필요성

장안석_건강한노동세상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연구원

1. 연구 배경

- 2003년부터 전면 급식이 되었고 2020년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1,903개교 100%, 1일 평균 538만 명의 학생이 급식을 하고 있으며, 학교당 평균 급식 학생 수는 452명이다. 급식을 전담하는 영양사 및 영양교사는 10,691명, 조리사 10,816명, 조리원 50,297명 등 전체 71,804명이 급식을 책임지고 있음.
- 전국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그 막중한 책임에 비해 매우 열악함. 근골격계질환, 조리흡 및 유해물질에 의한 폐암 등 호흡기질환, 넘어짐, 베임, 이상온도물체 접촉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됨.
-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급식실 11곳의 평균 배치기준이 60여명인데 비해, 학교 급식실은 배치기준이 약 130여명으로 2배가 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업무량, 작업환경 상의 위험, 작업조건과 그에 따른 피로, 자각 작업강도, 작업부하 요인 등을 조사하고 작업강도 및 육체적 작업부하에 대해 평가함.
- 이번 연구를 통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심뇌혈관계질환을 예방하고 사고 위험을 낮추며, 현재 식수 인원 대비 충원이 필요한 인력 수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과 방법

- (1) 설문조사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업무 특성, 작업조건, 작업환경, 피로도,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 자각 노동강도 및 작업부하
- (2) 육체적 작업능력 측정 : 개인의 최대육체작업능력을 측정하고 개인별 산소소모량-심박수 관계식 분석
- (3) 작업강도 및 육체적 작업부하 평가 : 작업에 소요된 에너지대사량을 추정하여 최대허용노동 시간을 산출하고 실제 노동시간과 비교하여 육체적 부하량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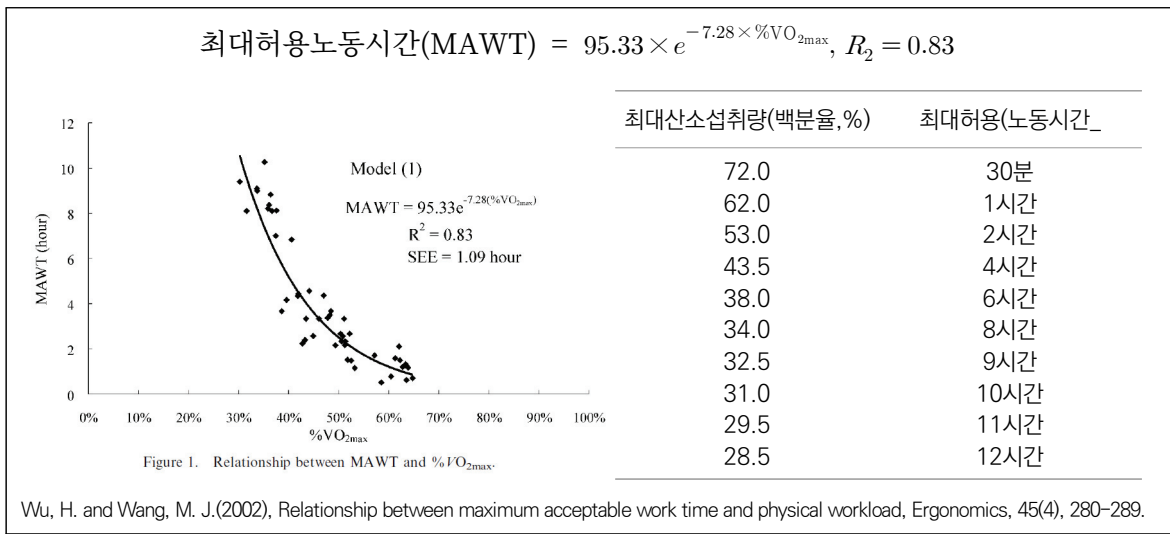
(4) 연구 기간 : 설문조사(2019년 12월~1월), 육체적 작업능력 측정(2020년 1월), 작업강도 및 육체적 작업부하 평가(2022년 6월, 10월)

$$\text{육체적 작업부하} = \text{작업강도} \times \text{노동시간}$$

$$\text{작업강도} = \frac{\text{작업 중 산소소모량}}{\text{개인의 최대산소소모량(최대육체작업능력)}} \times 100$$

$$\text{노동시간} = \text{실제 노동시간 측정}$$

$$\text{육체적 작업부하량} = \frac{\text{실제 근무한 노동시간}}{\text{작업강도에 따른 최대허용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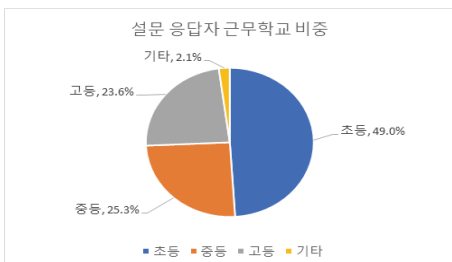


3. 연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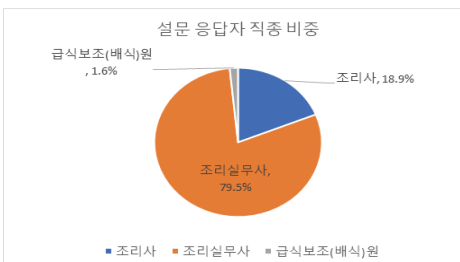
(1) 설문 결과

① 일반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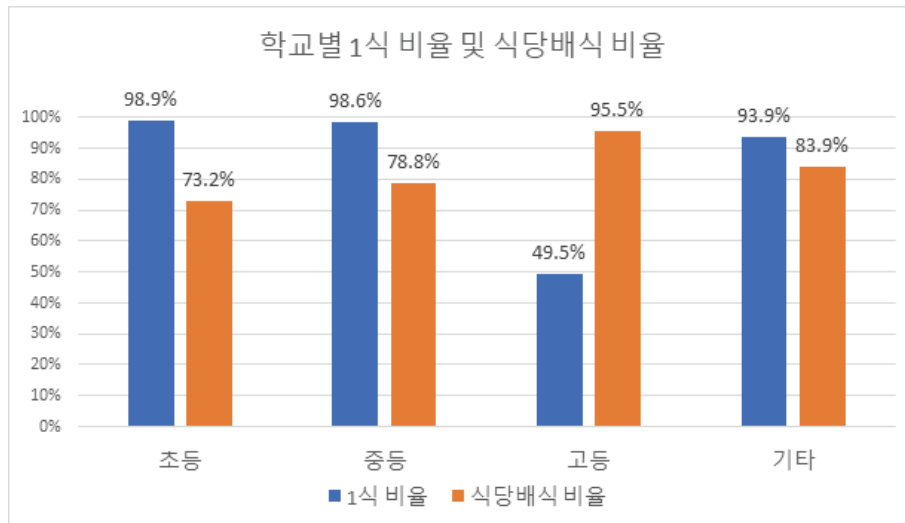
설문조사 당시 전국의 급식실 종사자 6만여 명 중 4,100명을 수거 목표로 하여 배포하였고 3,128명이 응답했으며,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99.8% 여성, 99%가 무기계약직, 평균 연령은 51.4±5.3세, 평균 근속연수는 10.8±6년으로 나타남.



[그림1] 설문 응답자 근무학교 비중



[그림2] 설문 응답자 직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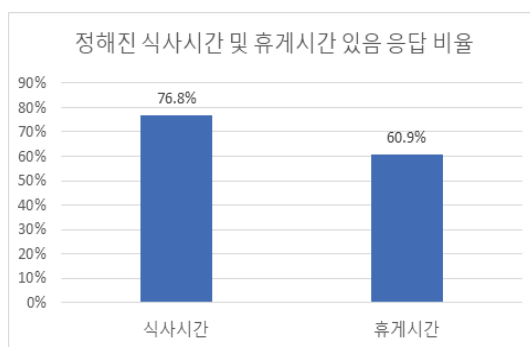


[그림3] 학교별 1식 비율 및 식당배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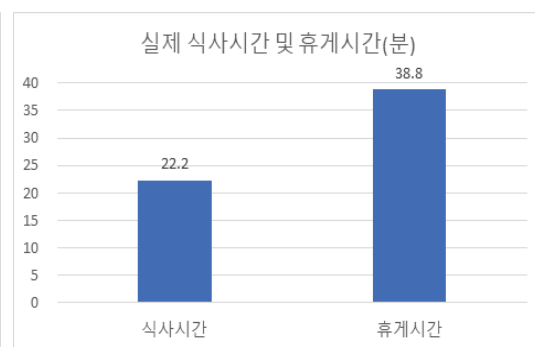
- 경기 초등(45.6%), 중등(22.2%), 고등(31.2%)
- 경기 조리사(15.2%), 조리실무사(84.5%), 보조원(0.3%)
- 경기 1식(96.4%), 식당배식(71%)

② 노동시간 및 업무량

- 노동시간은 평균 8.2 ± 0.95 시간, 77%가 정해진 식사시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평균 식사 시간은 22.2 ± 12.5 분, 60%가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평균 휴게시간은 38.8 ± 12 분으로 응답함.
- 본인의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과 학교의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으로 오인했을 가능성 있음
- 현재 COVID-19로 인해, 교직원 및 학생의 식사시간을 교대 형태로 운영하여 최근에는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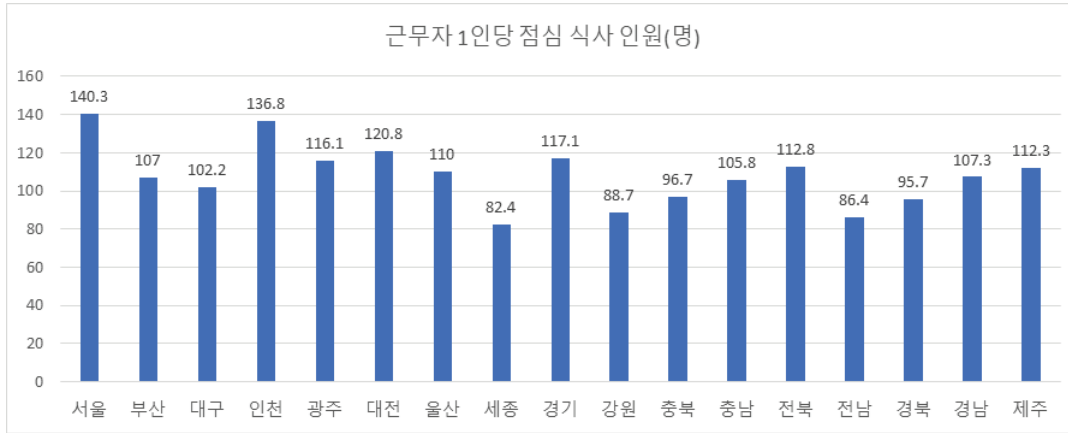
[그림4] 식사 및 휴게시간 있음 비율



[그림5] 실제 식사 시간 및 휴게시간(분)

- 경기 식사시간 있음(73.6%), 평균 23.5 ± 13.2 분
- 경기 휴게시간 있음(58.2%), 평균 41.5 ± 18.4

- 근무자 1인당 점심 식사 인원 평균 114.5±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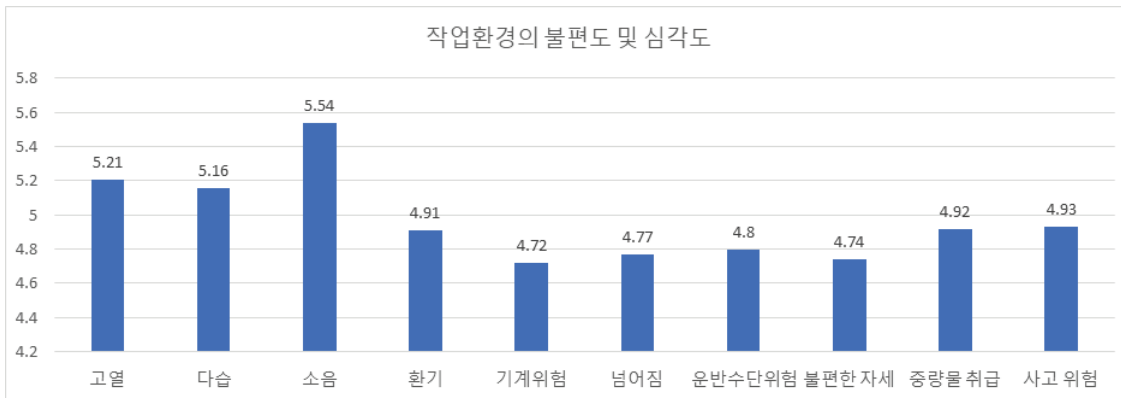


[그림5] 근무자 1인당 점심 식사 인원(명)

- 경기 117.1±59명

③ 작업환경 및 휴게시설, 기계화 정도

- 보통(4점)을 기준으로 1점~7점(매우심각)으로 설문한 결과 소음, 고열, 다습 요인 특히 열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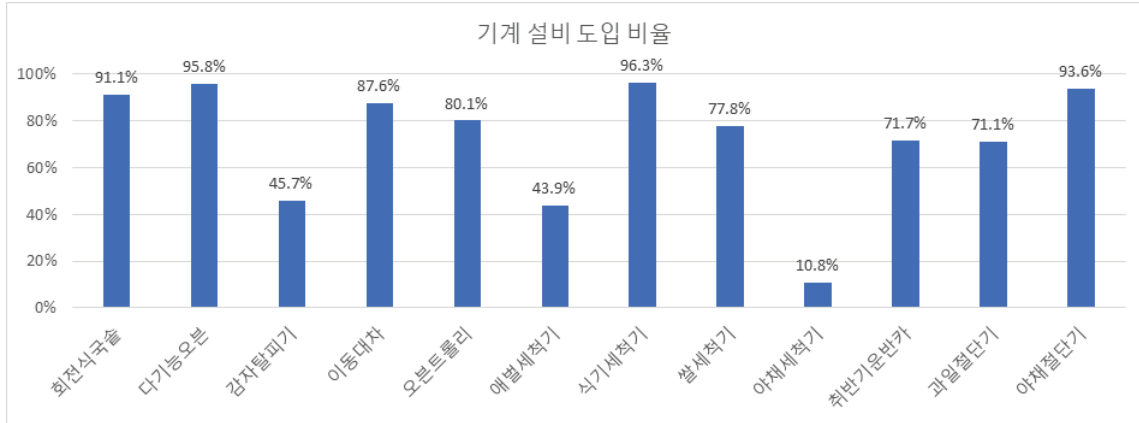


[그림6] 작업환경의 불편도 및 심각도

- 경기

고열	다습	소음	환기	기계위험	넘어짐	운반수단위험	불편한 자세	중량물 취급	사고 위험
5.1	5.3	5.4	4.8	4.7	4.8	4.7	4.7	5.0	4.9

- 설문한 기계장비 12대 중 도입 대수를 비율로 산출한 결과, 고등학교(73%), 중학교(69.4%), 초등학교(68.7%), 기타(50%) 순임.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으며, 사용이 불편하거나 시간에 쫓겨서 사용하지 못하고 실제 업무량에 비해 기계가 부족하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조리 시 조리 모양 등이 안 좋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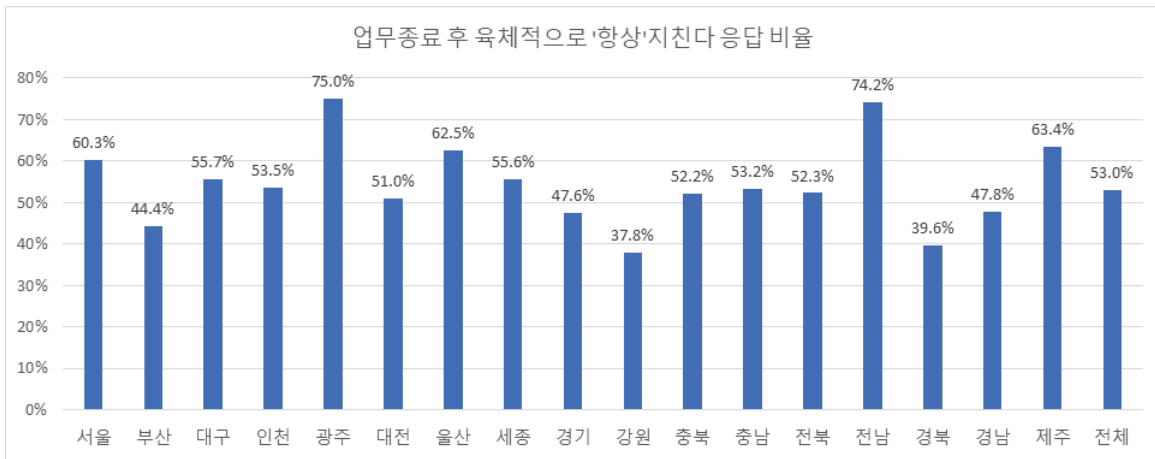
[그림기] 기계 설비 도입 비율

• 경기 기계설비 도입 비율

구분	회전식 국솥	다기능 오븐	감자 탈피기	이동 대차	오븐 트롤리	애벌 세척기
도입비율(%)	90.5	97.6	15.9	89.2	91.4	62.8
구분	식기 세척기	쌀 세척기	야채 세척기	취반기 운반카	과일 절단기	야채 절단기
도입비율(%)	95.5	87.5	11.1	72.7	88.0	96.0

④ 작업강도 및 피로도, 근골격계질환 실태

- 업무 종료 후에 육체적으로 '항상' 지친다는 응답이 53%로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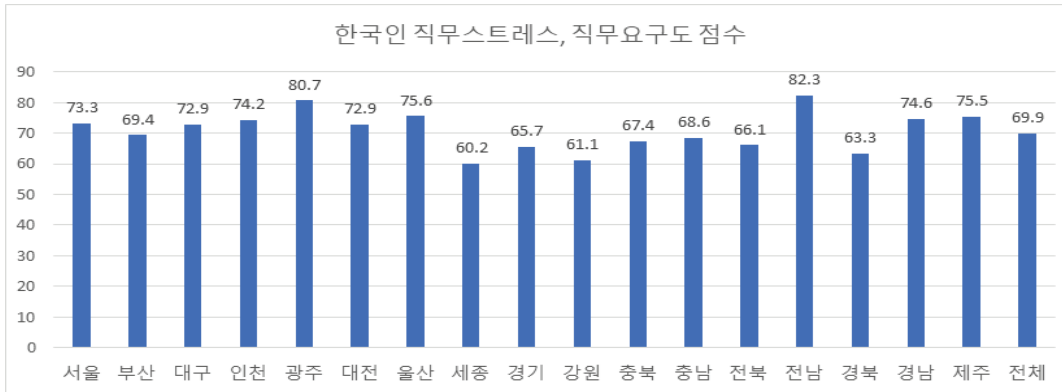


[그림8] 업무 종료 후 육체적으로 항상 지친다는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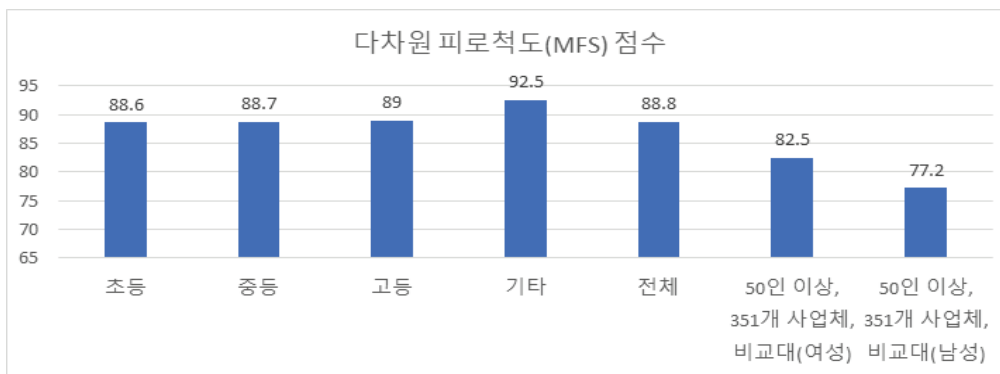
[표1] 가장 힘든 작업

		1순위		2순위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전체	내용	설거지 및 정리	음식 조리	설거지 및 정리
	비율	43.2%	21.3%	30.1%

- 한국인 표준 직무스트레스 평가, 직무요구도 고위험군(한국인 참고치 상위 25%이상 점수)에 45%가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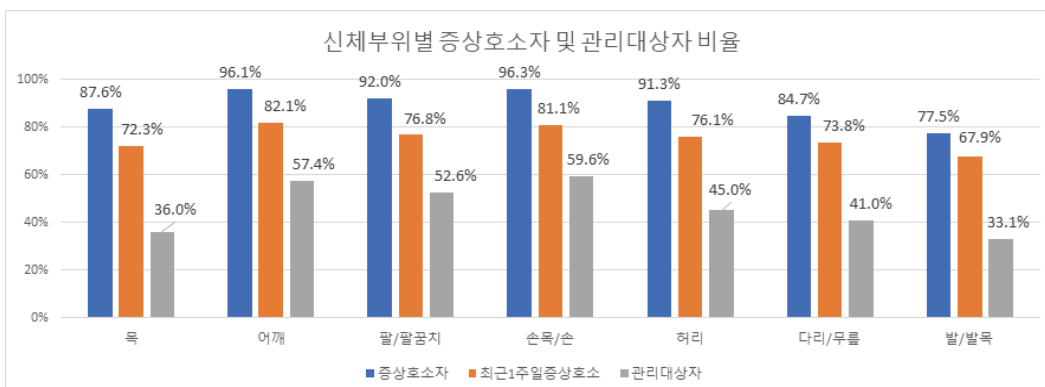


[그림9]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평가 중 직무요구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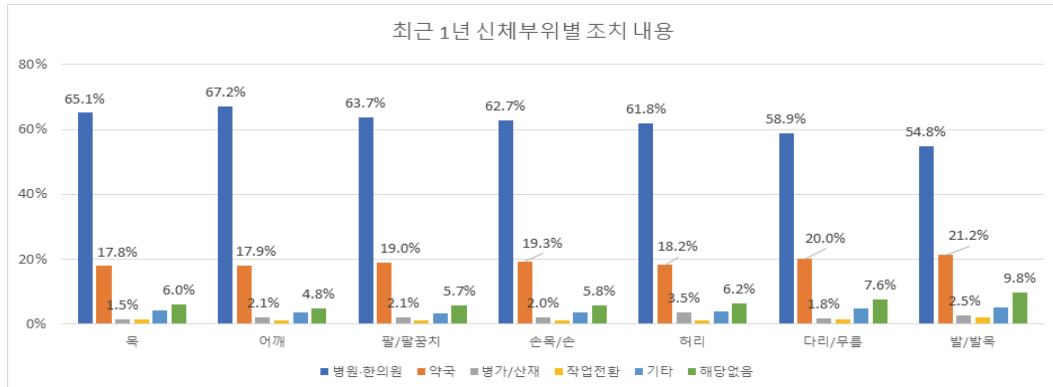


[그림10] 학교별 다차원 피로척도(MFS) 점수

- 근골격계질환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기준 관리대상자 60% 이상
- 최근 1년 병원 및 한의원 치료자 60%, 산재/병가자는 4%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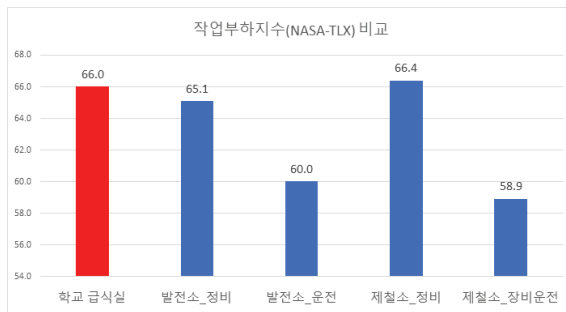


[그림11] 신체부위별 증상호소자 및 관리대상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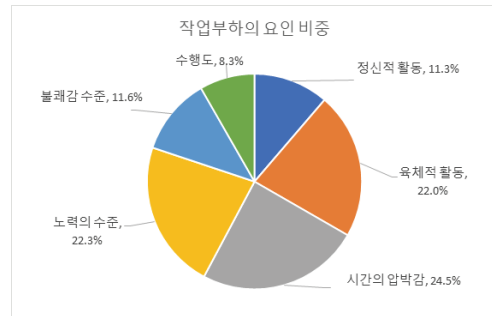


[그림12] 최근1년 신체부위별 치료 등 조치 내용

- NASA-TLX 직무부하 평가 결과(66±13점), 시간 압박감(24.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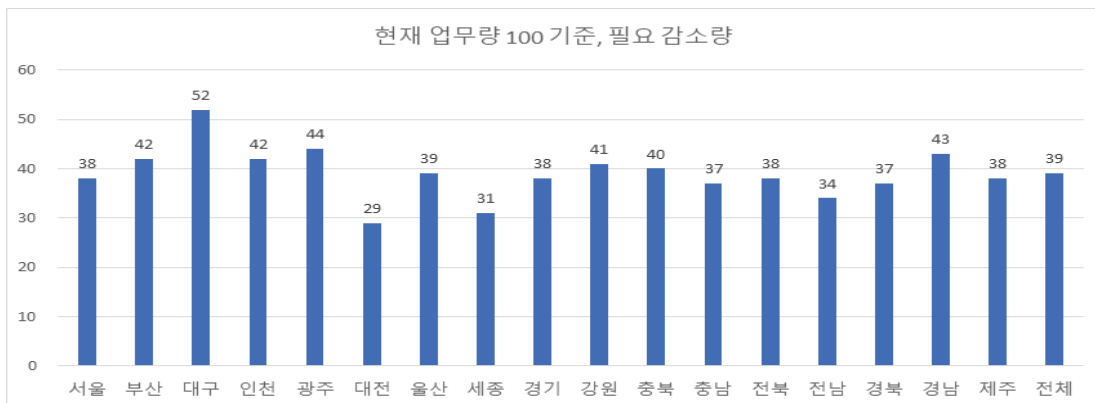


[그림13] 직무부하 점수



[그림14] 작업부하의 요인 비중

- 현재 업무량(100) 대비 39% 감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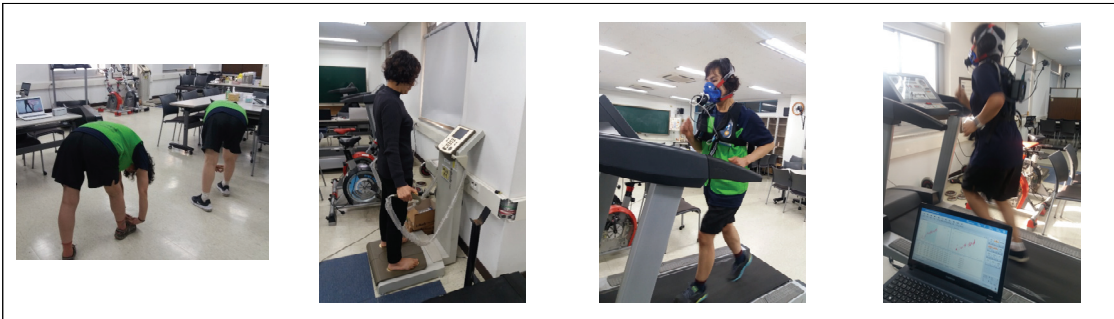


[그림15] 현재 업무량(100) 기준, 필요 감소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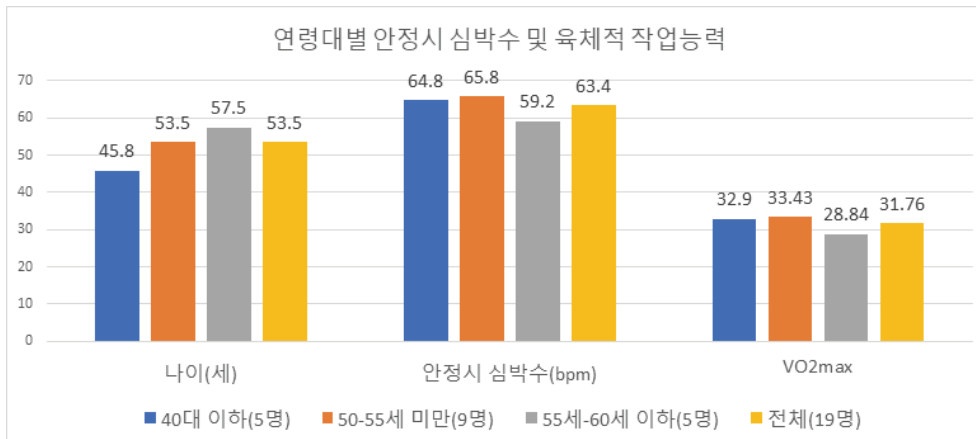
(2) 작업강도 및 육체적 작업부하 평가 결과

① 연령대별 육체적 작업능력

- 최대육체작업능력 평가에 참여한 피실험자는 초등학교 7명, 중등학교 급식실 7명, 고등학교 16명(전문고 4명, 인문고 12명)으로 전체 30명이며, 30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40~50대이며 평균 나이는 51 ± 4.7 세이며, 최대육체작업능력(VO_{2max})은 평균 32.88 ± 5.1 mL/kg/min로 나타났으며, 연령 및 평소 운동량, 근육량 등에 따라 차이 있음.
- 작업강도를 평가한 피측정자는 30명 중 19명으로, 전체 육체적 작업능력은 31.76 mL/kg/min이며, 40대 이하는 보통의 능력, 50대 초반은 좋음, 50대 후반은 보통임.



[그림16] 육체적 작업능력 측정 및 실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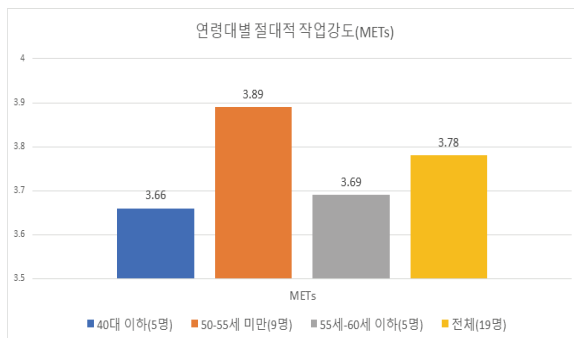
[그림17] 연령대별 안정시 심박수 및 육체적 작업능력

[표2] 연령대별 육체적 작업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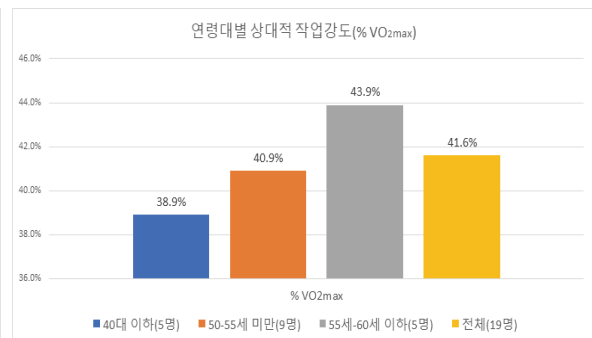
구분	피측정자 (명)		나이(세)	안정시 심박수(bpm)	VO2max (mL/kg/min)
50세 미만	5	평균	45.8	64.8	32.90
		측정일수	19	19	19
		표준편차	3.6	5.7	3.96
50-55세 미만	9	평균	53.5	65.8	33.43
		측정일수	54	54	54
		표준편차	1.1	9.0	6.00
55세-60세 미만	5	평균	57.5	59.2	28.84
		측정일수	38	38	38
		표준편차	1.6	4.5	4.86
전체	19	평균	53.5	63.4	31.76
		측정일수	111	111	111
		표준편차	4.4	7.8	5.69

② 작업강도 평가 결과

- 육체적 작업능력을 측정한 30명 중 COVID-19 방역 등으로 19명만 작업강도 평가를 진행함.
- 절대적 작업강도(개인의 육체적 작업능력을 고려하지 않은)는 50대 초반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상대적 작업강도(개인의 육체적 작업능력을 고려한)는 50대 후반 연령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평균 연령은 51.4±5.3세로, 상당히 높은 작업강도에 노출되어 있음.
- 즉, 본 연구의 50대 초반은 개인의 육체적 작업능력이 비교적 좋은 편이기 때문에, 보통의 작업자들이 경험하는 작업강도는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 8시간 기준 허용하는 작업강도는 최대산소섭취량(VO2max)의 33~34%이나, 전체적으로 41.6%로 기준을 상회함.



[그림18] 연령대별 절대적 작업강도



[그림19] 연령대별 상대적 작업강도

[표3] 연령대별 절대적 및 상대적 작업강도

구분	피측정자 (명)		작업중 평균심박수	작업 심박수1)	METs	% VO2max
50세 미만	5	평균	98.6	33.8	3.66	38.9%
		측정일수	19	19	19	19
		표준편차	5.4	5.7	0.56	4.2%
50-55세 미만	9	평균	97.9	32.1	3.89	40.9%
		측정일수	54	54	54	54
		표준편차	8.9	7.5	0.96	6.8%
55세-60세 미만	5	평균	101.3	42.1	3.69	43.9%
		측정일수	38	38	38	38
		표준편차	8.4	9.3	1.35	11.0%
전체	19	평균	99.2	35.8	3.78	41.6%
		측정일수	111	111	111	111
		표준편차	8.3	9.1	1.06	8.3%

1) 작업심박수 = 작업 중 평균심박수-안정시 심박수

[표4] 요일별 절대적 및 상대적 작업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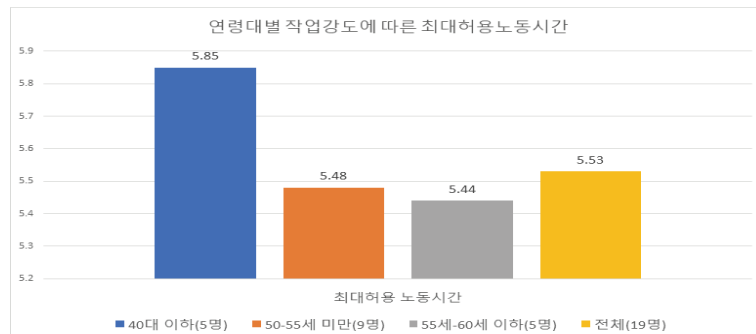
측정 요일	구분	작업 중 평균 심박수	작업심박수	METs	% VO2max
월	평균	99.3	38.5	4.1	43.2%
	측정일수	19	19	19	19
	표준편차	8.9	7.0	1.2	9.8%
화	평균	101.7	37.3	3.9	42.8%
	측정일수	23	23	23	23
	표준편차	7.8	10.3	1.2	9.2%
수	평균	98.4	35.3	3.7	40.2%
	측정일수	22	22	22	22
	표준편차	8.4	9.7	1.0	8.0%
목	평균	98.1	34.5	3.7	40.6%
	측정일수	23	23	23	23
	표준편차	9.4	9.9	0.9	8.2%
금	평균	98.4	34.1	3.7	41.4%
	측정일수	24	24	24	24
	표준편차	7.1	7.9	1.0	6.8%
전체	평균	99.2	35.8	3.8	41.6%
	측정일수	111	111	111	111
	표준편차	8.3	9.1	1.1	8.3%

[표5]참고자료_신체활동에 따른 METs(대사당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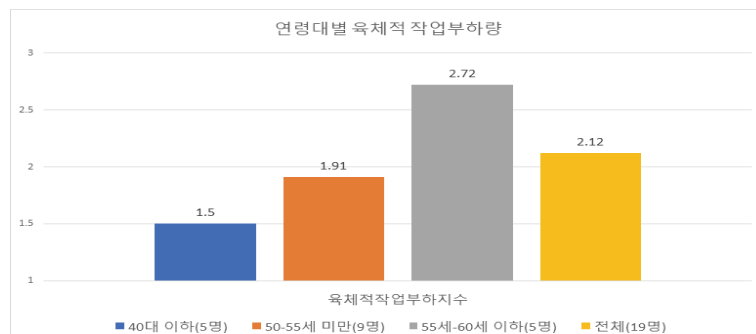
신체활동	METs
가벼운 활동	< 3.0
수면	1
앉아서 TV 시청	1.3
서서 업무 (컴퓨터, 전화, 대화, 가벼운 노력)	1.8
천천히 걷기 (3.2 km/hour, 단단한 바닥, 느린 속도)	2.8
중강도의 활동	3.0-6.0
자전거 타기 (8.8km/hour, 여가활동)	3.5
빠른 걸음 (5.6km/hour, 직업, 운반물 없음)	4.3
자전거 타기 (15km/hour), 여가활동)	5.8
중강도 이상의 활동	> 6.0
달리기 (6.4km/hour)	6.0
말 손질(먹이주기, 마구간 청소, 말 목욕, 말 운동 포함)	7.3
달리기 (8.1km/hour)	8.3
삽질 (7.3kg/min, 깊은 깊이, 격렬한 노력)	8.8
소방관 (장비착용상태, 호스 및 장비 운반, 벽 허물기)	9

③ 육체적 작업부하량 평가 결과

- 작업강도에 따라 최대 허용하는 노동시간은 전체 5.5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근무시간 (8~11시간)의 길이에 따른 육체적 작업부하지수는 2.12로 나타남.



[그림20] 연령대별 작업강도에 따른 최대허용노동시간



[그림21] 연령대별 육체적 작업부하지수

[표6] 연령대별 육체적 작업부하지수

구분	피측정자(명)		최대허용 노동시간	육체적작업부하지수
50세 미만	5	평균	5.85	1.50
		측정일수	19	19
		표준편차	1.81	0.45
50-55세 미만	9	평균	5.48	1.91
		측정일수	54	54
		표준편차	2.73	1.01
55세-60세 미만	5	평균	5.44	2.72
		측정일수	38	38
		표준편차	5.00	1.82
전체	19	평균	5.53	2.12
		측정일수	111	111
		표준편차	3.54	1.36

4. 제언

1) 적절한 작업강도를 위한 인력충원

적정 인원은 1일 작업시간에 따른 최대허용작업강도 대비 실제 작업강도를 비교하여 산출함. 가령 1일 노동시간이 8시간일 경우 허용하는 최대 작업강도는 최대육체작업능력의 34%이며, 당일 개인의 작업강도가 40%였을 경우 적정 인원은 현재 인원의 1.18배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됨.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전체 평균 1인당 배치기준은 114±60명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인력 충원(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산출)하였을 경우 배치기준은 86±23명임.

$$\text{적정 인원 증감률} = \frac{\text{실제 작업의 작업강도}}{\text{노동시간에 따른 최대허용 작업강도}}$$

[표7] 현재 인원 대비 적정 인원

	측정일 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50세 미만	19	1.15	0.13	0.03	1.09	1.21
50~55세미만	54	1.21	0.20	0.03	1.16	1.27
55~60세 미만	38	1.30	0.33	0.05	1.19	1.41
전체	111	1.23	0.25	0.02	1.18	1.28

2) 대체 인력 pool 운영

학교당 급식실 운영 인원 자체가 적은 편이며 연차 사용 또는 경조사, 병가 등의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1인당 급식 인원 및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제 증원인력은 1.23배 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음.

대체 인력을 지원청이나 구 단위에서 Pool로 운영하는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조리공간 및 장비, 급식 방법 등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입시 각 시도별 교육청 및 노동조합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3) 작업환경에 따른 인원 총원

작업환경에 대해 보통(4점)을 기준으로 매우심각(7점)으로 설문한 결과, 소음(5.54), 고열(5.21), 다습(5.16), 환기(4.91) 순으로 작업환경의 불편도 및 심각도를 호소함. 육체적 작업부하 평가시 이러한 작업환경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육체적 작업부하 평가를 10월에 진행하여 여름, 겨울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작업강도에 따른 육체적 작업부하 평가의 결과로 현재 인원의 1.23배가 필요하며, 작업환경상의 요인을 고려하면 총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요구됨.

고열 작업의 경우, 화기 사용 설비를 줄이고 인덕션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함.

4) 세척 설비 증설 및 반조리 제품 사용

작업 내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작업이 설거지 작업인 반면에, 애벌세척기 설치 비율이 43.9%에 불과하며 세척기 역시 업무량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조리과정의 설비에 대해서는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여 공간 레이아웃을 정비하고 해당 공간에 애벌세척기, 세척기 등을 증설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른 소음 저감 대책이 요구됨. 또한 전처리 업무 부담을 낮추고 위생 등을 고려하여 세척된 식자재, 반조리된 제품 등을 공급하는 것도 요구됨.

5) 근골격계질환 예방

반복 작업, 갑작스런 힘 사용, 불편한 자세, 작업강도 등 직업적인 요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세척된 식자재 및 반조리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식기세척기 및 애벌세척기 증설 등이 권장되며, 학교 보건실에서 테이핑 요법 실시, 스트레칭 교육 및 실시 등 조치도 필요함.

6) 고령노동자 지원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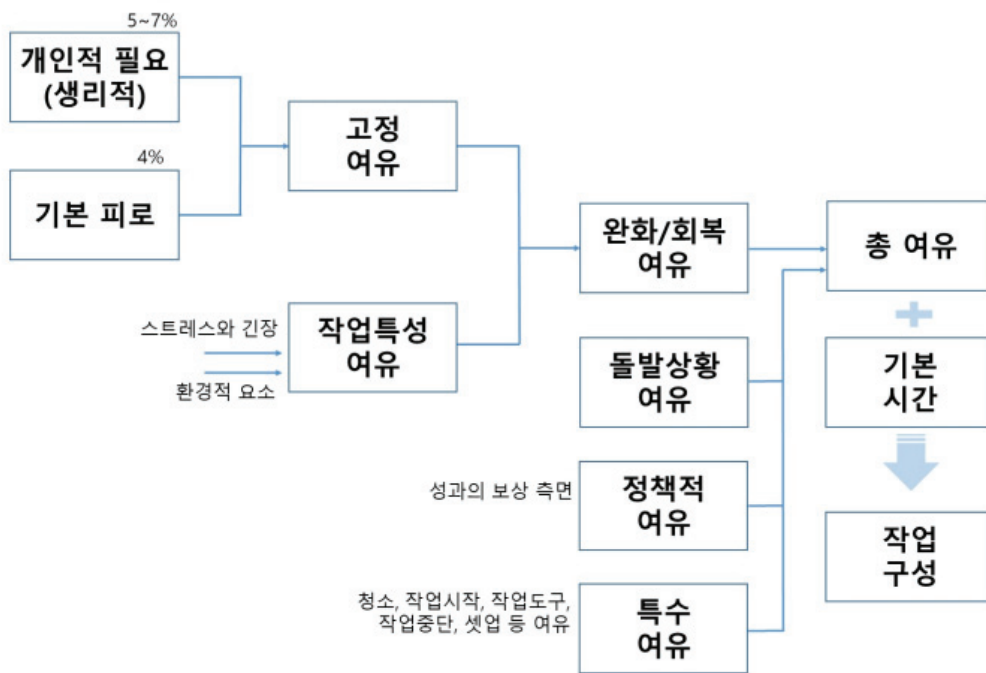
육체적 작업능력은 20~25세에 최대가 되며, 1년마다 1~2%씩 감소하며, 65세가 되면 각 개인

의 25세의 최대산소소모량 대비 70% 수준에 도달.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 여성의 경우 남성의 육체적 작업능력의 65~75% 정도임. 연구결과에서도 55세 이상의 피실험자의 육체적 작업능력은 보통에 해당하나 육체적 작업부하는 2.7배로 매우 높게 나타남. 고령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7) 작업-휴식 비율 개선

국제노동기구는 일반적으로 작업은 기본시간과 여유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유율은 모든 작업에 있어서 기본 피로를 회복하는 여유율(4%)와 개인적 및 생리적 여유율(5~9%)를 제시함. 또한, 작업의 힘든 정도 및 어려운 정도, 작업환경(소음, 분진, 습도, 온도, 환기 불량, 조명, 진동 등), 돌발 상황 등에 따라 추가적인 여유율을 부여하고 있음.

현재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경우,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점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작업에 따른 여유율 자체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



[그림22] 국제노동기구 여유율을 포함한 작업구성

주제발표 2

급식조리노동자 배치기준 역사와 개선 필요성

한승현_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

급식조리노동자 배치기준 역사와 개선 필요성

한승현_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

1. 들어가며

시행 초기 재원, 무상 유·무 등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현재 학교 집단 급식(이하 급식)은 모든 학생에게 위생적이고 좋은 영양의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교 복지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급식을 먹기 위해 학교에 온다는 학생도 있을 정도이며,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교의 모든 사업 중 항상 1, 2위를 다룬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각 국의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급식이 최고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토록 순항하고 있는 급식이 누구의 노동으로, 어떤 고통을 담고 우리 앞에 오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다. 10년간 문제없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으니, 앞으로도 점심시간이 되면 변함없이 내 앞에 와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일까?

급식은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점에서 가장 잘 드러나듯, 교육적이고 공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역시 식생활의 공공성이다. 국민의 건강을 바람직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균형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다. 특히 균형잡힌 식사는 어린 시절부터의 식습관을 통하여 습득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채소와 야채류의 식단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육식 위주의 식단은 기후위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와 돼지, 닭의 대규모 사육과 도축으로 인한 탄소 발생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이다. 학교에서부터의 식습관 개선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현재의 급식 정책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 학교는 매 학기 혹은 매월 학생에게 급식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튀김과 볶음, 육류메뉴 선호가 항상 최상위권이다. 심지어 경기도는 카페테리아 급식 시행까지 계획하고 있다. 뷔페식으로 급식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야말로 급식에 대한 교육적, 공공적 가치를 아예 무시한 발상이다.

급식의 교육적, 공공적 성격을 고민할 때 또 한가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이다. 학교 급식은 매년 산업재해가 평균 800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전 년 대비 60%나 급증한 1,200건을 기록했다.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폐암 산업재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55세 이상 학교 급식실 근무자 또는 급식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폐 CT(컴퓨터 단층촬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 검진 대상자 4만8446명 중 이상소견자는 1,748명(29.3%)에 달했으며, 61명은 폐암 의심소견을 받았다. 급식노동자의 배치기준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급식노동자는 한 명이

평균 120명의 급식을 조리한다. 타 공공기관에 비하면 2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는 근·골격계질환(회전근계파열, 손목터널 증후군 등)의 핵심적인 이유로 여겨진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식노동을 하려는 노동자들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현재 일하고 있는 급식노동자의 평균연령이 50대가 넘어감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는 정말 사람이 없어 급식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급식노동자는 5년 이하 노동자의 이직률이 매우 높는데, 이직 사유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제 병들고 다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악한 배치기준으로 인한 노동 강도가 첫 번째 원인이라면, 두 번째 원인은 방중에 무급 상태로 방치되는 저임금 때문이다. 학교에서 일하는 타 직군(교원, 공무원)과 다르게 방학에는 그야말로 일시적 실직상태가 되는 것이다. 급식조리노동자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직업이다.

현재 학교급식은 중대한 기로점에 서 있다. 급식의 역사가 10년이 지나며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의 뜻은 점점 퇴색되고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환경이 낙후되고 있으며 종래에는 급식실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안정된 급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학령 인구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축소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종착점은 교육의 질 하락은 물론 학교급식의 미래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이 발제문에서는 급식의 몰락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할 문제인 급식조리노동자 배치기준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한다.

2. 현황

1)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급식노동자 현황

21년도 4월 기준으로 경기도소속 초·중·고·특수학교 3571개교(급별분리)에서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수는 1,414,306명 교직원수는 416,516명, 합계 1,830,822 이 중 조리사·조리실무사 13,896명이 학교 급식조리 노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131명분의 급식을 조리하고 있음. (비정규직 강사직군, 특수운영직군 미포함)

※ 전국 평균 120명

학교수	학생수	교직원	총 식수	급식조리노동자	평균 식수인원
3571	1,414,306	416,516	1,830,822	13,896	131명

※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존재하는 지역임.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고 신도시와 구도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급식의 형태도 다양함. 특히 안양과 수원 등 위탁 급식(200년대 초반)부터 급식을 시작한 지역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급식조리노동자의 배치기준은 전국 평균인 120명보다 10명 많은 130명으로 유지되고 있음.

2) 경기도교육청 소속 급식조리노동자 배치기준의 설립과 변화

- 2009년도 배치기준 설립(1인당 120~150명분 준비)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
- 2017년도 전면적인 야간자율학습 폐지로 고등배치기준을 하나로 통합
- 2018년도 예외조항 삭제 (노동조합과 협의없음)

※ 2015년도 학교급식 업무메뉴얼

주요 내용

①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종합대책(2009.10.9 결재) 관련」

급식 구분	급 별	급식인원수별 조리종사자 배치기준(단위:명)											
		50명 이하	51~100	101~300	301~500	501~650	651~800	801~1,000	1,001~1,200	1,201~1,400	1,401~1,600	1,601~2,600	2,601명 이상
중식	초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11인	12인
	중	1인	2인	3인	4인	5~6인	7인	8인	9인	10인	11인	12인	13인
	고	1인	2인	3인	4인	5~6인	7인	8인	9인	10~11인	12인	13인	14인
중·석식	고	1인	2인	3인	4인	5~6인	7~8인	9인	10인	11~12인	13인	14인	15인

※ 교육실무직원(조리사) 및 일반직 조리사 포함

※ 배치기준의 급식인원은 급식학생수, 교직원, 유치원 등 포함된 인원수임

※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중식(고등학교는 중식 또는 중·석식) 운영에 따른 배치기준으로 고등학교 3식운영, 배식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조정 가능함

단, 교육공무직원의 인사운영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2015년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운영 계획”을 준수하여 교육지원청단위 운영

② 조리종사자수 최종 결정 : 교특지원인력+무상급식부담인력(수익자부담)

※ 무상급식비의 식품비 : 운영비 : 인건비 예산 비율의 적정 확인

※ 2022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구분	급식 구분	급 별	급식인원수별 조리종사자 배치기준(단위:명)											
			50명 이하	51~100	101~300	301~500	501~650	651~800	801~1,000	1,001~1,200	1,201~1,400	1,401~1,600	1,601~2,600	2,601명 이상
배치 기준	중식	초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11인	12인
		중	1인	2인	3인	4인	5~6인	7인	8인	9인	10인	11인	12인	13인
		고	1인	2인	3인	4인	5~6인	7~8인	9인	10인	11~12인	13인	14인	15인

※ 교육공무직원(조리사) 및 일반직 조리사 포함

※ 배치기준의 급식인원은 급식학생수, 교직원, 유치원 등 포함된 인원수임

※ 본 배치기준은 중식 운영에 따른 배치기준으로 급별 급식인원에 따라 조리종사자 정원관리하며,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제4조에 의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석식운영 초과근무 인원수 : 석식 급식인원에 따라 중식의 배치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며, 그 이상 운영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 결정

※ 물결구간 배치기준은 해당구간 급식인원 중간을 기준으로 인원 산정

※ 배치기준은 경기도교육청의 인력정책과 교육급식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겪었음. 하지만 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 등을 고려한 주요한 근거는 없음. 특히 식수인원 100명에서 500명 구간은 200명 단위로 분할되어 있고 500명에서 800명 구간부터는 150명, 그 이후로는 200명으로 분할됨. 이러한 분할의 사유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음. 단지 2009년 첫 배치기준을 설립할 당시의 재직자수를 기준으로 학교별 배치기준을 결정한 것임. 또한 당시의 배치기준은 각 학교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측면이 존재했음. 이는 고등 2식과 3식뿐 아니라 배식유형(공동조리, 병행배식 등)에 따라 추가로 1명을 허용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음.

2017년 전면적인 야간자율학습폐지로 급식노동자 배치기준은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됨. 통상 2식 학교의 경우 1명의 급식노동자를 추가로 배치하였으나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되며 고등학교의 급식이 1식으로 전환되었음. 이에 따라 고등학교 소속 급식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삭감되었으며 배치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모든 고등학교 당 1명의 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 배치기준을 2식 기준으로 통합하였음.

2018년에는 전까지 허용한 학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배치기준의 예외조항 삭제. 배식유형에 따라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것인데 이는 노동조합은 물론 학교와의 어떠한 사전의견수렴 없이 진행되었음. 더불어 현재까지도 단설유치원의 배치기준은 존재하지 않아 각 학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3) 공공기관 평균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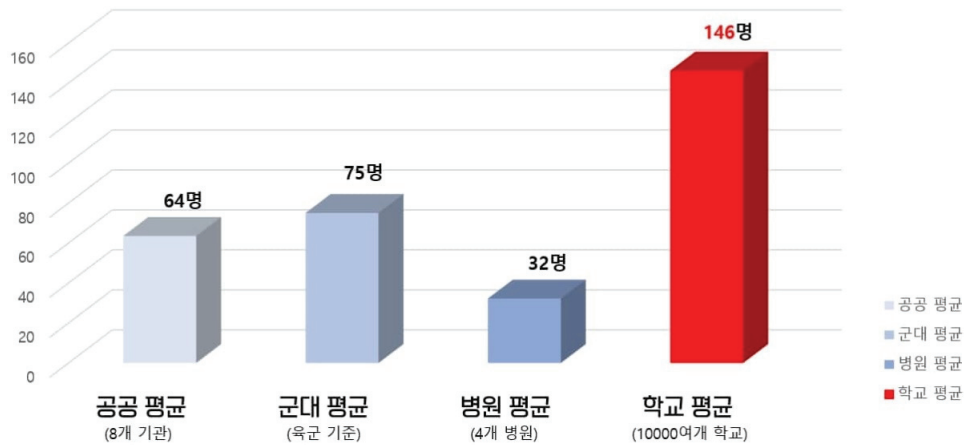
○ 공공기관 배치기준(2014 국회 정책자료 우원식, 박홍근 의원실)

공공기관	조리노동자(명)	총 급식인원(명)	1인당 식수인원(명)
국사편찬위	2	90	45.0
국립특수교육원	2	80	40.0
국책연구원 평균	29	1,808	62.3
공기업 평균	27	1,300	48.2
과학기술원 평균	52	3,200	61.5
여성부 국립수련원	35	1,208	34.5
국립대병원 평균	446	9,396	21.1
공공기관 평균	593	17,082	28.8
병원제외 평균	147	7,686	52.3

○ 주요 공공기관 조리종사원 1인당 식수인원(2019년 1월, 김종훈 의원 보도자료)

공공기관명	1인당 식수인원
대전기초과학 연구원	18.0
부산대병원	22.1
부산대병원 양산	31.3
서울대 병원	17.9
서울대병원 소아병동	57.7
철도공사	75.0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회관	80.0
한국과학기술원 동측식당	78.6
한국과학기술원 학사 식당	90.9
한국도로공사	38.8
한국수자원공사	54.2
평균	65.9

집단급식소 1인당 식수인원 비교



※ 2014년과 2019년 우원식, 박홍근, 김종훈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조리종사원 1인당 하루에 감당해야 할 식수 인원은 최소 18명에서 많게는 130여 명 정도로, 평균 65명. 군대의 취사병 또한 평균 75명 정도의 식수인원을 감당하고 있음. 반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1인당 하루에 감당해야 할 식수 인원은 평균 146명으로 공공기관 평균수준에 비하면 2~3배에 달하고 있어 이 자체만으로도 높은 노동강도에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인원의 식사를,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고강도 압축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학교 급식실의 현실임.

4) 배치기준을 결정하는 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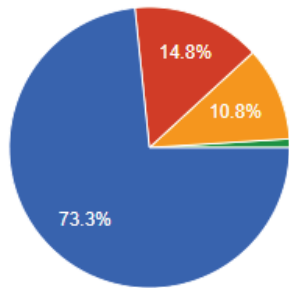
- 배치기준이란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 학교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수를 결정하는 것.
-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기준 : 급간(초·중·고), 식수인원
⇒ 음식의 양을 기준으로 배치기준을 결정
- 그 밖의 고려해야할 요소들 : 배식형태(병행배식, 공동조리, 식당 다수, 급식차 다수, 등), 시설 노후화, 급식실 면적, 배식차 이동거리, 메뉴 등

○ 배식형태에 따른 분류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의 배식형태는 어떻습니까?

 복사

응답 49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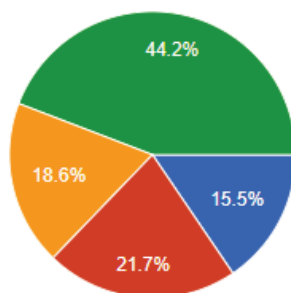


- 식당배식
- 교실배식
- 병행배식(식당배식+교실배식)
- 공동조리교 (비조리교에 급식을 보내는 형태 혹은 두 학교이상이 하나의 식당을 함께 사용)

병행배식 혹은 교실배식이라고 답하신 경우 배식차를 이동하는 거리가 평균 몇 m입니까?

 복사

응답 1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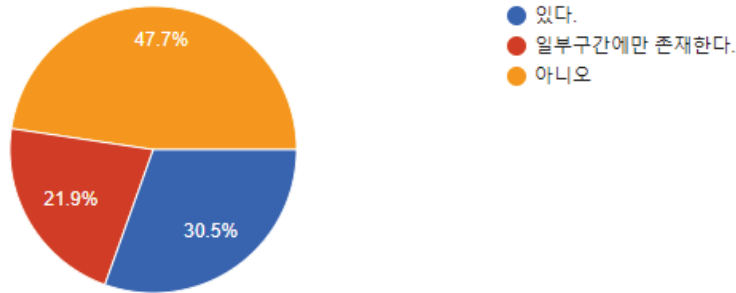


- 5m 미만
- 5m-10m
- 10m-20m
- 20m 이상

병행배식 혹은 교실배식이라고 답하신 경우 배식차의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까? (보도 블럭 제거, 카펫 등)



응답 128개



병행배식 혹은 교실배식이라고 답하신 경우 배식차를 이동하는 길이 평지입니까?



응답 127개



- 70% 가까운 조합원이 식당배식학교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교실배식과 병행배식, 공동조리교의 수치가 적지 않음. 특히 병행배식교와 공동조리교의 경우 일반 학교보다 배식의 형태로 인한 노동강도가 높음. 특히 급식차를 이용하여 식사를 옮기는 교실배식과 병행배식의 경우 40%넘는 학교에서 20m이상 배식차를 이동하고 있었음. 배식차의 무게는 통상 60Kg-70Kg를 상회함. 이러한 급식차를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라고 할 만한 것이 대부분의 학교에 없으며(47%) 있더라도 일부구간에만 존재함(21%). 병행배식과 교실배식의 경우 급식차를 이동하는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농후함(손목터널 증후군 등). 이러한 상황에 더해 급식차를 이동하는 통로에 턱이 존재하거나(44%) 심지어 오르막(8%) 내리막인(1.5%) 경우도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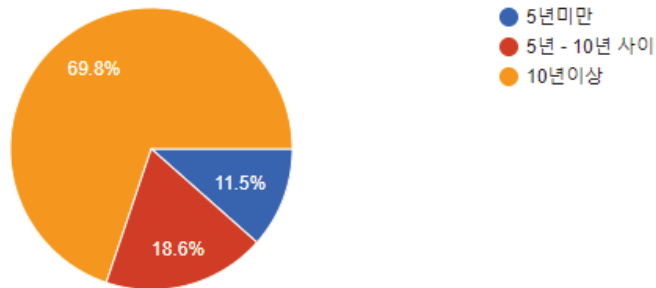


○ 시설노후화

선생님이 일하고 계신 학교의 조리실은 개교한지 얼마의 기간이 지났습니까?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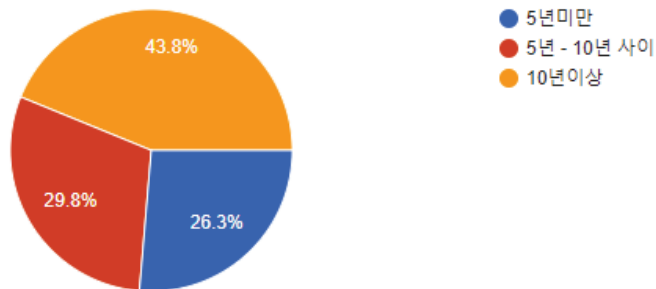
응답 494개



선생님이 일하고 계신 학교의 조리실은 현대화한지 얼마의 기간이 지났습니까?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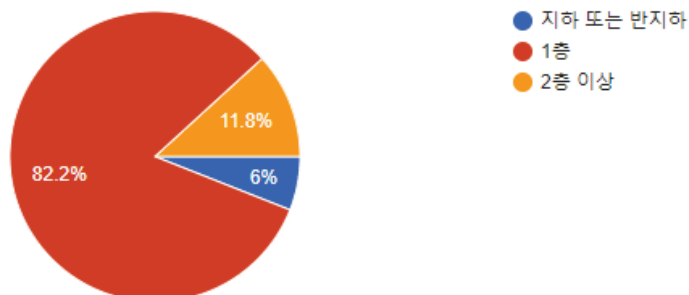
응답 429개



선생님의 학교 조리실은 몇 층에 있습니까?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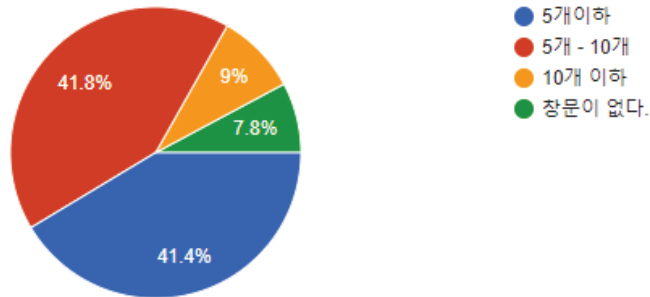
응답 501개



조리실 내부에 창문이 대략 몇 개가 있습니까?

복사

응답 50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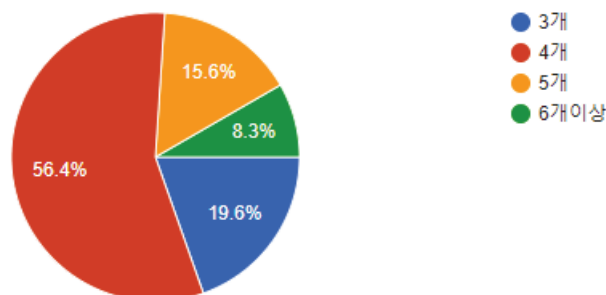
-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시설은 노후화 되어 있음. 특히 안양, 수원 등의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급식을 시작한 지역으로 위탁급식을 시행할 당시의 조리실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음. 자동화기기는 많은 수가 보급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조리실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급식노동자의 산재 및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 최근 이슈가 된 폐암은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받아오고 있는데 특히 지하 또는 반 지하에 위치한 조리실의 수치(6%)는 많은 것을 의미함. 그렇다고 일반적인 조리실의 환경도 통풍에 유리하다고 보기 힘들. 창문이 없는 곳도 8%에 달하며 40% 이하의 조리실에 창문이 5개 이하이고 10개 이하인 곳이 대부분임. (총 합계 90%)

○ 메뉴수의 증가와 다양화

선생님 학교의 평균적인 메뉴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밥, 국 제외)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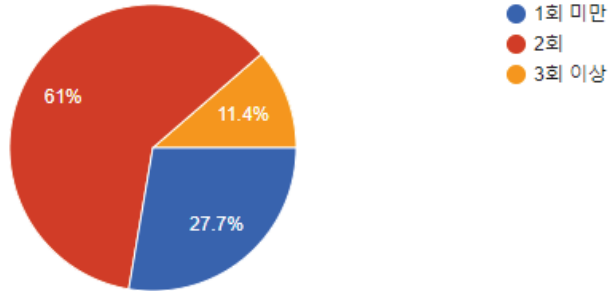
응답 505개



튀김류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조리합니까?

응답 50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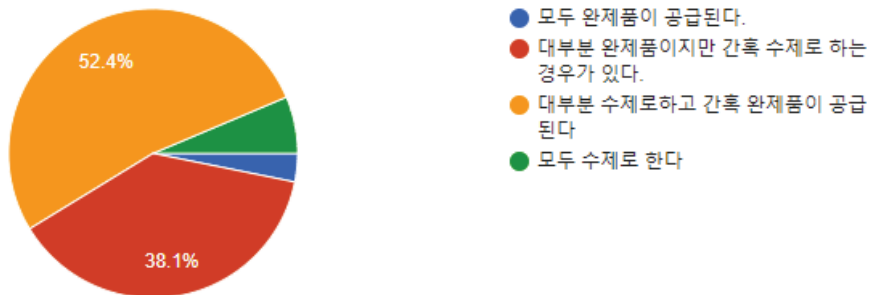
복사



튀김류 조리시 완제품이 공급됩니까?

응답 50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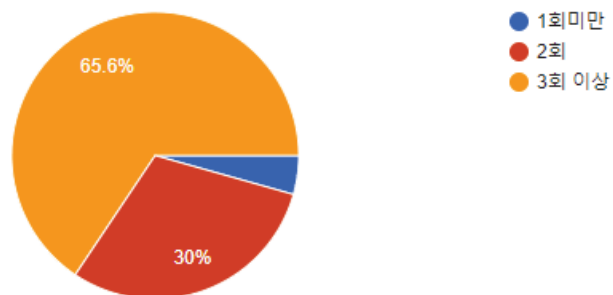
복사



볶음류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조리합니까?

응답 50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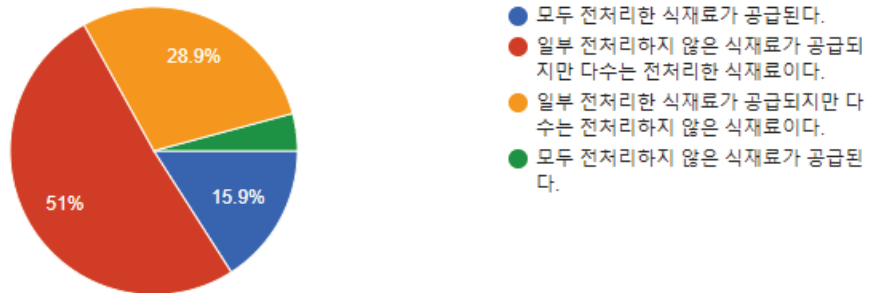
복사



전처리한 식재료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복사

응답 502개



- 집단 급식은 그 특성상 많은 수의 메뉴를 조리하면 할수록 노동자의 노동 강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음. 조합원 설문결과 평균 메뉴(국,밥) 가 5개라고 답한 곳이 (15.6%)였으며 평균 6개 이상이라고 답한 곳도 (8.3%)라고 존재. 평균 3시간 정도의 조리시간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메뉴의 수입. 더군다나 튀김류의 경우(돈까스, 탕수육 등) 완제품보다 압도적으로 수제조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52.4%) 특히 6.3%는 모든 튀김류 메뉴를 수제로 조리한다고 답했음. 전처리 식재료 사용유무도 눈여겨볼 만한 수치가 조사됨. 29%가 전처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다수라고 답했으며 4.2%는 모두 전처리하지 않는 식재료가 공급된다고 답함.

○ 메뉴 증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 2015년 경기도교육청 급식운영 메뉴얼

②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 ▶ 연 1회 이상 실시 (표본조사 가능)
- ▶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급식운영에 참고
- ▶ 교원평가 및 학교평가 설문조사의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③ 학교급식 기호도 조사

- ▶ 학생들의 기호를 조사하여 싫어하는 음식은 조금씩 다른 대체 식품과 섞어서 조리하거나 다양한 식단을 개발하여 기호도를 증가시킴
 - ▶ 잔식·잔반량 조사 : 식단에 대한 섭취율은 잔식·잔반측정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1인당 레시피 수정작업에 참고
- [예시] 학교급식 만족도·기호도 조사(초등용)
[예시] 학교급식 만족도·기호도 조사(중·고등용)

주요내용

3. 식단평가

계획된 식단은 제공되기 전에 검토되어야 하고 급식 후에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간 점검 : 학교급식 영양량 준수에 대한 점검

[예시] 주간 영양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기간: 년 월 일 - 월 일	
항 목	확인
1. 접곡을 구성하여 제공하였는가?	✓
2. 어패류를 주 1회 이상 제공하였는가?	✓
3. 해조류 또는 버섯류를 주 1회이상 제공하였는가?	✓
4. 신선한 과일을 주 1회 이상 제공하였는가?	✓
5. 우유 및 유제품을 주 2회 이상 제공하였는가?	✓
6. 동일한 주재료가 주 2회 이하로 사용되었는가?	✓
7. 채소류 중 나물반찬(생채,숙채,무침,나물)을 주3회 이상 제공하였는가?	✓
8. 튀김류를 주 2회 이하로 제공하였는가?	✓
9.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을 주 2회 이하로 제공하였는가?	✓
10. 학교급식 영양량을 준수하였는가?	✓

1) 점검표는 법정양식은 아니며 학교에서 주간식단 검토 시 확인할 사항들을 제시하였음
2) 주 5일(급식일이 주3일 이내가 되는 경우, 다음 주에 합산)을 기준으로 작성
3) 국물용으로 사용된 멸치, 다시마는 어패류 및 해조류에서 제외

- 2022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 방향

5. 학생건강중심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식품을 선택하는 교육 활동

- 학생의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식단 제공
- 음식을 선택하고, 선택한 음식을 남기지 않는 책임감 교육

나. 조리인력과 시설 허용 범위 내에서 일부 **선택식단** 주요리 선택, 소스 선택, 국선택 등) 제공부터 시작, 조리사 조리실무사와 실행 방안 논의 권장

<p>【선택맞춤형 식단 제공 예】 죽제공: 건강상태에 따라 정상급식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소화기 용이한 죽을 제공하여 건강회복을 돕는 급식형태 알레르기식단: 식품알레르기 유증상 학생에게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제거 하거나, 대체식품을 제공하는 식단 선택식단: 두 가지 식단을 제공하여 학생이 원하는 식단을 선택하는 급식형태 이벤트식단: 생일, 절기, 세계음식문화의 날 등, 주제를 정해 그 의미를 교육하고 이해하는 식단제공 방법 생태·환경식단: 생채(로컬푸드, 저탄소)·환경(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주제 식단(채식식단 등)</p>
--

- 학교단위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현황(2021년)

전체학교수	선택맞춤형식단제공 (중복 표기)				
	죽제공	선택식단	이벤트식단	알레르기대체식단	생태·환경 식단
2,482	710(29.0%)	260(10%)	1,187(47.8%)	2,134(86%)	316(12.7%)

: 화성A고등학교

일식단보기 월간식단보기

2013. 1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3년 10월 08일 식단

중식안내

image

중식 : 현미잡쌀밥
어묵썩갓탕
달걀야채찜
돼지고기김치볶음
시리얼양상추샐러드

일식단보기 월간식단보기

2018. 0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8년 05월 14일 식단

중식안내

크게보기

중식 : 흑미밥
돈육김치찌개
떡갈비스테이크
감자재볶음
가지나물
총각김치

일식단보기 월간식단보기

2022. 1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2년 10월 31일 식단

중식안내

image

중식 : 칼슘기장밥
김치어묵국(1.5.6.9)
로제찜닭(2.5.12.13.15.)
우유야채계란찜(1.2.9.)
건과래볶음(5.13.)
깍두기(9.)
고스트도넛(1.2.5.6)

- 전면 무상급식 시행 초기 교육청은 식단에 대한 교육청차원의 지침이 존재했음. 이는 식단평가를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평가 체크리스트를 운영계획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가능함. 하지만 2022년 현재는 이러한 식단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없음. 더불어 학생의 기호도를 높이기 위해 2015년에는 대체식품을 개발하는 것을 내부 지침으로 삼고 있었음.

하지만 학생 기호도를 위해 선택식단, 이벤트 식단 등 메뉴를 늘리는 것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함. 이는 급식노동자의 건강권 뿐 아니라 튀김류,육류 위주의 식단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임. 2022년에는 심지어 카페테리아식 식당을 시범 운영하며 메뉴다양화, 전면 자율배식을 추진중.

3. 왜 배치기준을 개선해야 하는가?

1) 산업재해

□ 2015.1.1.~2019.12.31. 학교 급식실 비정규직 조리종사자 산업재해 현황(경기도)

(단위: 건)

발생형태	총합계	비율(%)	연도별 발생건수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169	100	147	175	230	279	338
화상	335	28.66	51	58	66	83	77
넘어짐	312	26.69	35	46	55	77	99
끼임	102	8.73	11	13	33	21	24
물체에 맞음	86	7.36	17	20	9	13	27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7	0.60	0	2	2	0	3
절단, 베임, 찢림	78	6.67	9	10	18	27	14
떨어짐	24	2.05	4	2	8	3	7
깔림, 뒤집힘	30	2.57	0	2	3	10	15
화학물질누출, 접촉	18	1.54	4	6	2	2	4
부딪힘	51	4.36	2	3	19	16	11
근골격계질환	105	8.98	14	10	14	21	46
기타	21	1.80	0	3	1	6	11

* 산재환자 증가율: 매년 20% 이상 증가(2015년 대비 2019년 2.3배 증가)

* 근골격계 질환: 2015년 대비 2019년 3배이상 증가

* 2021년 현황 (참고기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051454001#c2b>

2)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신입 조리종사원과 몇 년 안에 도래할 인력부족

○ 최근 5년간 입사한 조리종사원 중도퇴사 현황(2022년, 강득구 의원)

가. 조리사

지역	입사 인원					중도 퇴사 인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강원	8	2	0	7	0	0	0	1	0	0
경남	-	-	55	47	26	-	-	0	0	1
경북	-	-	54	42	29	0	0	0	2	1
광주	27	32	19	34	21	0	9	5	2	1
대구	46	42	32	46	17	8	4	2	1	0
부산	0	0	13	0	0	0	0	7	7	1
서울	10	29	35	44	0	6	11	10	17	0
울산	12	25	31	32	16	1	4	2	3	1
인천	-	-	-	-	-	-	-	-	-	-
전남	34	24	23	20	4	7	4	4	4	0
전북	-	-	-	-	-	-	-	-	-	-
제주	15	15	19	14	11	1	5	3	2	1
충북	15	2	0	0	0	1	1	0	0	0
합계	167	171	281	286	124	24	38	34	3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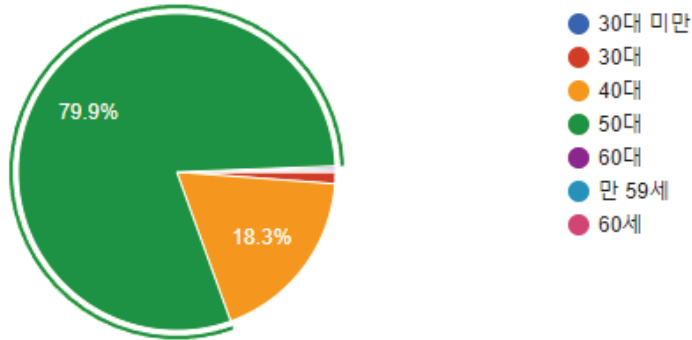
나. 조리실무사

지역	입사 인원					중도 퇴사 인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강원	97	116	101	215	86	10	11	11	26	0
경남	-	-	449	235	263	-	-	47	45	35
경북	-	-	234	251	55	-	-	70	49	10
광주	146	35	140	143	129	4	16	10	6	5
대구	365	170	179	277	117	48	28	55	50	20
부산	-	-	271	366	191	-	-	63	112	79
서울	299	314	385	551	290	87	95	83	124	38
울산	25	44	58	113	87	5	21	17	14	12
인천	-	-	105	481	141	-	-	21	133	11
전남	198	151	279	372	106	46	47	78	102	1
전북	-	-	201	214	85	-	-	27	48	16
제주	52	59	46	50	45	16	16	17	11	7
충북	109	120	262	223	94	24	23	62	70	20
합계	1291	1009	2710	3491	1689	240	257	561	790	254

선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응답 503개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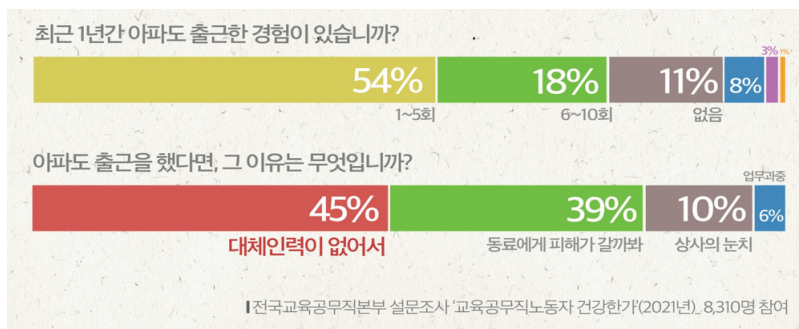


최근 강득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입사한 조리사가 중도 퇴사한 비율은 2018년 14.37%, 2019년 22.22%, 2020년 12.10%, 2021년 13.29%, 2022년 4.84%, 조리실무사의 경우 2018년 18.59%, 2019년 25.47%, 2020년 20.70%, 2021년 22.63%, 2022년 15.04%이다. 퇴사 이유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상담을 통해 접하는 당사자들의 주된 이야기는 ‘업무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숙련과 함께 구성원이 함께 손발을 맞춰 일해야 하는 급식실에서 잦은 퇴사가 반복되는 일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정년퇴직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다.

3) 아파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현실

※ ‘교육공무직노동자 건강한가’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2021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현재 학교 급식실의 배치기준은 결코 여유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1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 자리를 메꿀 대체인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대체인력 인력풀 제도는 실효성이 없거나,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결국은 영양사 또는 조리종사원 스스로 대체인력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021년 8,3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파도 출근을 한 경험이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89%, 그 이유로는 84%가 동료에게 피해가 가거나, 대신 일 할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결국 업무를 대체할 노동자가 없어 부족한 인력으로 그야말로 사람을 갈아 넣어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근본적인 개선책은 배치기준을 개선하는 것

급식노동자의 산재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할 방법으로는 식자재를 소분하여 운반한다거나, 보다 강화된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식자재를 소분하면 그만큼 많이 움직여야 하고, 안전장비가 강화될수록 움직임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적절한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급식실의 안전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고, 고용이 안정됐어도 열악한 노동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퇴직을 선택하는 신규 급식노동자의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있다. 골병과 다치는 일은 일상다반사가 된 학교 급식실의 배치기준 개선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임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현재 강원, 충북, 충남, 울산, 인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점형 전담대체인력제도는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 어느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인력풀 제도 역시 교육청 내 전담 관리팀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체인력 채용 역시 사용자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양사들이 손에 꼽는 어려움 중 하나가 대체인력을 구하는 일이다.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영양사 역시 하루 종일 전화를 붙잡고 연락을 돌리느라 다른 업무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급식실 인력은 각종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학교 급식의 질 저하로도 이어지기에 교육복지 관리 영역에 있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적정 배치기준 마련과 노동자의 안전, 휴식권 보장 더 나아가 안정적인 학교 운영의 문제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누구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아프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보장 되어야 한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그제야 대응하는 것이 아닌, 산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 1

**배치기준 개선으로
급식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손경숙_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급식조리분과장

배치기준 개선으로 급식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손경숙_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급식조리분과장

급식노동자의 하루일과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은 매일 식재료에 검수부터 다듬고, 씻고, 써는 전처리과정을 거쳐 볶고, 튀기고, 끓이는 조리작업으로 다양한 메뉴와 정해진 시간내에 음식을 완성해야해서 바빠 움직여야하고 그 짧은시간에 고강도 노동으로 음식을 만들어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만들어낸 음식을 아이들에게 배식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세척 즉, 청소과정이 남아있다.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급식실 안에 가득 쌓인 온갖 기물과 버려지는 음식들을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하고 지친다. 하지만 해야하기에 또 지친몸을 이끌고 남아있는 힘을 다해 마무리를 한다.

일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질환으로 매일 병원가서 치료받게 일상생활이 되었고, 그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조리휴으로 인해 폐질환까지 걱정해야만 한다.

왜? 급식노동자들은 이런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일해야만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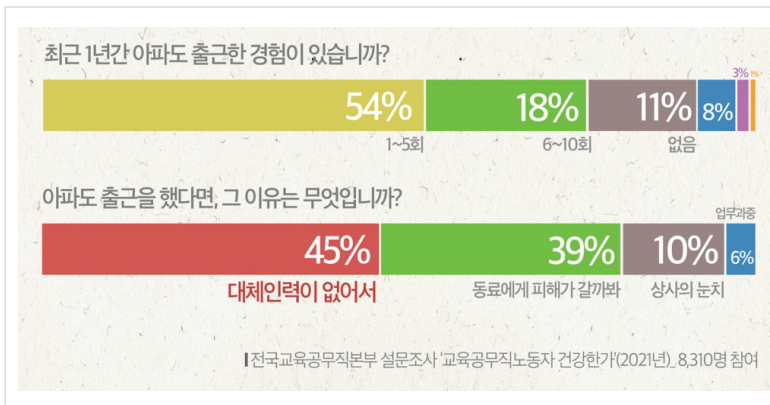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재발생이 2021년 한 해만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의 경우도 산재로 인정받은 건수가 2021년과 2022년 8월까지 취합했을 때, 1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시도별 산재현황으로는 경기가 371건으로 다른지역에 비해 4배로 가장 많았다. 넘어짐327건, 화상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 156건, 끼임 83건, 부딪힘 74건 이다. 이것으로만 보아도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다보니 많은 사람이 병가와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풀제도 또한 대체근무자를 수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고용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에 큰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대체 근무자가 구해지지 않아 동료들에게 미안해 아픈몸으로 일을 하거나 스스로 대체인력은 찾는 것이 현실이다.

※ 당근, 특방 등 대체 구하는 사진자료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021년 8,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파도 출근을 한 경험이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89%, 그 이유로는 84%가 동료에게 피해가 가거나,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결국 업무를 대체할 노동자가 없어 부족한 인력으로 그야말로 사람을 갈아 넣어 급식을 하고 있다.

결국 대안은 산업재해를 줄이기위해 배치기준을 개선하고 급식조리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자체의 대체 인력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지역(강원, 충북, 충남, 울산, 인천)에서 이러한 대체 인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에도 반드시 이러한 제도가 마련 되어야 급식조리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운영예시

전담대체인력 교육청 제도화 (3안): 신규채용을 6개월 정도 미리 진행(급식실), 동시에 신규채용 시 탈락자를 대상으로 대체인력제도 운영				
2022년 6~7월		2022년 9월	2023년 3월	
22년 6~7월에 필요한 총인원 ㉔00명 + ㉕00명 공고/채용심사	㉔ 합격자: 00명	대체인력으로 경험 쌓기 (대체인력 경험 우선권)	현장 투입(정규 배치)	
	㉕ 불합격자: 00명	▶▶▶▶▶ ▶ (당사자 동의 확인)	대체인력 계약 및 요청 학교 현장 배치 1)교육청 직접계약 2)기간제/일당 (당해 노임단가적용)	▶▶▶▶▶ (신규채용 시 경력인정 가산점 부여)
신규채용 사전 과정으로 현장 투입을 통한 대체인력 경력확보				

조리종사원의 경우 ㉔와 ㉕ 동시 운영, 그 외 직종의 경우 ㉕운영

- ㉔ 합격자 대상 운영 방안: 매년 신규 채용시 당해연도 9월에 다음 해 3월, 9월에 배치할 인원을 채용함. 합격자를 배치 전 미리 6개월정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다가 현장에 배치하는 형태. 다만, '대체인력 경험 쌓는 기간'은 '인턴, 수습기간'이 아님을 유의. 즉, 대체인력근무에 대한 평가를 통한 3월 배치가 아님. 3월 무기계약 정규인력 배치를 전제로 함.
- ㉕ 불합격자 대상 운영 방안: 불합격자의 경우 향후에도 교육공무직원으로 다시 응시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근무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필요시에도 대체 근무를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정적인 대체인력풀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

토론 2

현장 토론

최진_불곡중학교 영양교사

[현장 토론]

토론 3

**학교급식노동자는
폐암과 산재가 두려워서
급식노동이 이제는
정말 무섭다!**

구희현_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학교급식노동자는 폐암과 산재가 두려워서 급식노동이 이제는 정말 무섭다!

구희현_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1. 성명서

학교급식노동자는 폐암과 산재가 두려워서 급식노동이 이제는 정말 무섭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직무유기로 인한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멈추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폐암 검진 대상자 8,301명 중 1,653명 19.9%가 이상소견 진단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실태 확인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검진을 시행중이며 중간결과 보고자료를 제출한 경북, 광주, 대구 울산, 전남, 충남 6개 교육청의 검진결과를 취합한 결과이다.

특히 이상소견이 있었던 노동자 중 경북 8명, 광주 10명, 대구 7명, 울산 5명, 전남 14명, 충남 17명 총 61명의 노동자가 폐암 의심, 폐암 매우 의심으로 판정받아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22년 9월 14일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산재신청 79건, 승인 50건, 불승인 7건, 진행 중인 건이 21건이다. 이중 산재인정을 받고 사망한 학교급식노동자는 현재까지는 5명이다.

수년 전부터 급식실의 조리환경시설 등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예산타령과 서로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전체 3천816건이었으며 연평균 954건을 기록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도가 1천202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349건, 충남도 241건, 경남도 224건, 인천시 202건 등으로 집계됐다.

산재의 위험에 늘 노출되고 있다고 매년 급식현장 종사자들은 절규로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2천534개 학교 중 100개 학교에 대해서만 산업안전 순회점검을 해 점검률이 3.95%에 불과했다.

경기도가 학교수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동반한 안전불감증이 관행화 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지난 2018년 수원시 한 중학교에선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숨졌고 2021년 6월에는 화성시 한 고등학교 휴게실 옷장이 무너지며 조리사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올해 7월에는 안산시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자택에서 업무상 과로로 숨진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 등 급식관계기관은 어떻게 설명할 인가?

친환경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도입된 지 올해로 12년째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친환경무상급식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도 무럭무럭 성장했다고 본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밥상을 차린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비정규직 투명인간의 취급을 받기도 했으며 조리·배식·청소·설거지 등 노동과정에서 육체를 너무 혹사시켜서 더 이상 급식노동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급식현장의 열악하고 강도높은 노동환경으로 인하여 학교급식현장에서는 퇴사자가 줄을 잇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대체인력도 모집도 어렵고 신규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상황이다.

급식실을 산재 백화점이라고 하듯이 조리흡으로 상시 폐암에 노출되어 있고 근골격계질환은 다반사이며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는 작업현장에서 그 누가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학교급식을 책임지려고 하겠는가?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원인을 확실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에 중앙 관계부처와 국회 그리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우선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학교급식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급식실 인력충원 예산 편성과 급식단가 인상 등 교육복지의 보완과 강화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학교급식노동자의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 실시와 환기시설 개선에 위해서 교육부는 관련 제규정을 정비하고 학교급식실에 적정인원 배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학교는 공공기관의 2배에 달하는 급식인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시라도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근무및 조리환경개선에 관한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느낀 교육청 등이 현재의 직영급식을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 이는 학교급식노동자 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그리고 생산자 등 급식관계자들 모두는 죽이는 일로 판단된다.

일전 경기도교육청처럼 학교급식에 관하여 무능·무책임한 발상으로 경거망동한 시도를 해서 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정착되기 까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고통과 노고의 대해서 학부모·생산자·주민·학생·급식관계자·지자체·시민사회 단체 등은 자기중심적으로만 판단하고 지원과 연대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를 깊이 성찰하는 입장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학교급식노동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우리 도민들은 학교급식현장에서 급식노동자들이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다.

위 뜻에 동의하는 경기도민에게 연대모임을 제안한다.

2022년 9월 30일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2. 10월 15일, 학교급식 환경개선 전국급식노동자대회에서 느낀 소감

전국의 급식노동자들이 토요일에 용산의 아스팔트에 앉아서 열악한 학교급식현장을 옮겨놓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추진했던 친환경무상급식운동가들은 미안한 마음으로 곁에 앉아 절절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제공을 위해서 무상급식예산 책정과 급식단가 인상과 급식의 안전성만 강조하는 학교급식운동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조리종사자들의 열악한 조리환경과 처우개선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급식노동자들의 10여년에 걸친 아우성과 절규는 극에 달해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이 불가능하겠다는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학부모·학생·교직원·농민·주민·급식관계자들이 급식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여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국회와 지방의회에 민생1호 사안으로 풀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현안인 학교 급식실의 인력확충, 산재예방을 노동안전,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지난해 1,200건을 넘었고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고, 화상을 입고, 특히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의심 비율은 비슷한 성별과 연령대 일반적 폐암 발생률과 비교해 35배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열악한 배치기준과 제대로 쉴 수 없는 대체인력 제도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노동 강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은 세계의 최고이지만, 급식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방학 중 비급여와 불평등한 복리후생 처우, 노동강도 악화로 이어지며 더 이상 차별이 계속되면 학교급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구절절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급식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가 관철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친환경무상급식 이슈로 덕을 보았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무심하게 외면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급식을 위탁급식으로 돌리려는 책동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 4

**“인력배치기준을 포함한
학교급식실 노동 환경
척도를 개발하라”**

남궁수진_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인력배치기준을 포함한 학교급식실 노동 환경 척도를 개발하라”

남궁수진_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엄마 오늘 나 호박전 먹었다.”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으십니까? 오늘 선생님과 무엇을 배웠는지 일까요? 아니면 친구와 있었던 일일까요?

3학년 그리고 1학년 지금 11월이 다 되가는, 연차로는 거의 4년차 학부모인 제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문턱을 나서며 반갑게 맞이하는 학부모에게 가장 먼저 <밥>이야기, 오늘 토론 주제인 <급식>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호박전을 먹었어.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엄마가 해줄까?”

“아니 엄마가 해주는 건 학교에서 먹은 것보다 맛이 없을 것 같아.”

어떤 날은 깍두기가 조금 커서 앞니가 빠진 1학년들은 먹기 힘들었던 말, 오늘은 특별 메뉴인 회오리감자나 마카롱 등을 이야기하며 제법 자랑도 합니다.

학교를 보낸 학부모, 어른들은 뭘 배웠는지 뭘 얻었는지가 제일 궁금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것은 나중 순위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궁금하고 그날 도시락이 새롭거나 맛있으면 하루 종일 기뻐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이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다고 할 때, 가끔 서운하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반찬을 남기지 않았다며 자랑스러 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을 볼 때면 여기 계신 급식 조리 선생님들께 마음 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이들의 배움만큼 어쩔 그것보다 아이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밥이라는 것을 알기에 또, 아이들이 먹는 밥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큼 아이들의 밥을 지으시는 선생님들도 건강하셨으면 하는 것이 학부모 된 바람입니다.

학교급식실 노동 환경 척도 개발

“학교급식 조리사 산재 작년 한 해만 1000건 넘어”

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높은 업무강도와, 위험한 업무환경, 낮은 임금 등 사회적 필수 재라고 할 수 있는 살림,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그 중요성과 다르게 개선되는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 우의정의 <학교급식실 비정규직의 근무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충남, 경기, 세종의 각 100명의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실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휴가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체인력제와 인력배치기준의 차이는 근무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노동강도가 낮은 세종지역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 논문은 급식실 비정규직의 근무환경을 알아보기 위한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저 역시 인력배치기준을 다시 마련하는 것과 함께 비정규직의 근무환경에 대한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할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급식실에도 작업환경측정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부터 입법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법상 작업환경측정은 노동자가 작업시 유해인자로부터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 선행 사항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미세입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리흡으로 인한 폐암 산재등록에 따른 조치로 보이고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를 포함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환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체인력이 있는지 그래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미끄러움 방지 등 빈번히 발생하는 산재를 막을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들을 갖추었는지
- 안전시설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 실제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 유병률
- 배식환경(식당배식이 교실배식보다 위생, 안전의 측면에서 낫다는 연구결과- 급식유형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 만족도, 한국영양학회지, 김숙희 등 2003)

급식실 조리 선생님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보다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환경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척도들, 바로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학교 급식실을 관리하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급식실 인력과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전국 학교 급식실서 산재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저는 지난 5월에 학교 급식 재료 신선도를 검사하는 학부모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봉사를 위해제가 급식실에 들어서자마자 영양사 선생님이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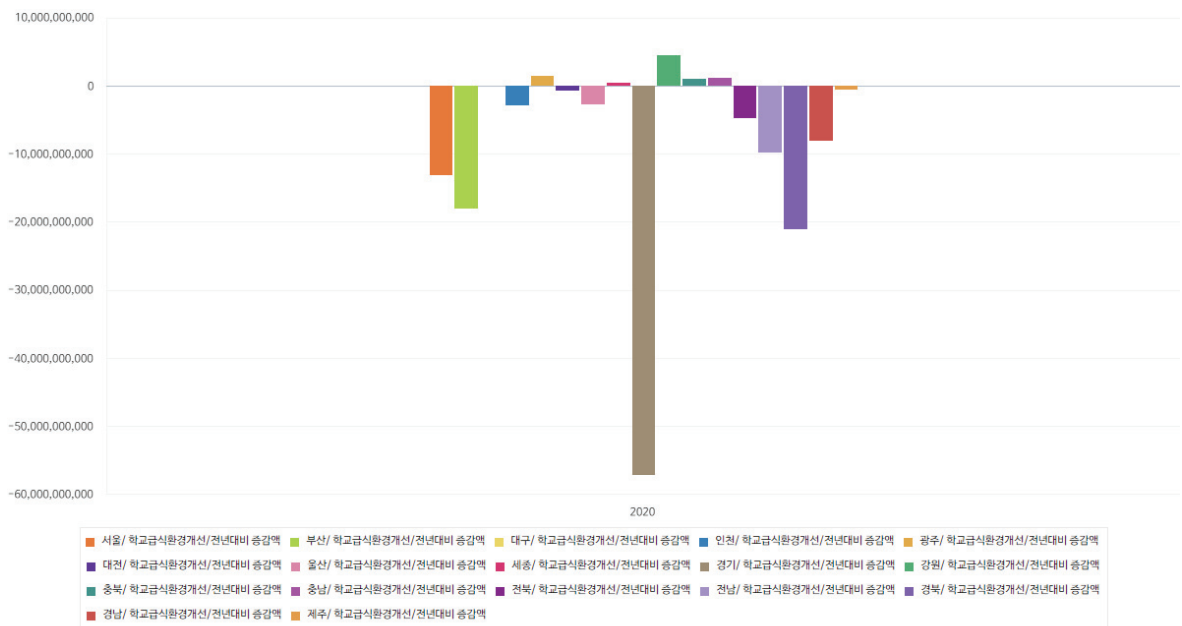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곧 급식실을 둘러보고 왜 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받은 채소를 큰 개수대에 물을 담고 있는 주변으로 당연히 물방울이 튕 수밖에 없고, 기름이 튀겨지는 주변은 자주 닦아낸다 하여도 조금 빨리 걸거나 서두르면 미끄럽기 마련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유형으로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짐이 가장 많았고, 화상, 근골격계 질환이나 절단과 배임과 같은 사례가 있었고, 산재로 인정된 폐암의 경우 PET CT를 실시한 5개 교육청에서 폐암 발병률이 20%, 급식실에 근무 중인 조리 선생님 중 다섯 분 중 한 분이 폐암일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각 학교, 교육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공개된 사이트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2020년 기준 지방교육재정분석 그래프를 찾아보았습니다.

지방교육재정에서 맞춤형 검색으로 어떤 전국, 혹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하나 그래프로 만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도교육청”별로 / “학교급식환경개선예산”의 / “증감액”을 이렇게 세 가지 분류 항목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증감액 그래프로, 정말 실망스럽게도 보이시는 아래로 가장 긴 그래프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2020년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교급식환경개선/전년대비 증감액 중 경기도 교육청은 (마이너스) “-57,229,922,010 원”으로 시설비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2020년 자료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 이렇게 시설개선에 비용을 줄인 결과가 오늘로서 나타납니다. 지난 9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산재 발생건수가 경기도교육청 1202건(3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산재 발생에 비해 안전점검 실시율도 극히 낮았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울산교육청의 경우 248개교 중 246개교(99.18%)에 점검을 실시하며 가장 높은 점검률을 보였다. 반면 점검률이 10%도 되지 않은 곳도 은 서울교육청이 1404개교 중 29개교(2.07%)에 점검을 실시하며 가장 낮았고, 경기교육청은 100개교(3.95%)에 그쳤습니다.

저는 천안 소재 어느 공장 구내 식당 조리 노동자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OO공장은 노동조합이 영향력이 있어서 공장 노동자의 작업 환경뿐만 아니라, 몇 명 되지 않는 식당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노동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최근 많은 학교와 회사의 구내식당들이 외주·위탁을 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식당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공장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꼼꼼하게 조합원들의 상황을 살피고 있다니 다행이었다.”그래도 우리 공장은 계속 작업환경을 몸에 무리가 안 가게 바뀌었어요. 여기 노동조합이 잘 되어 있어서, 조합에서 나와서 식당·주방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자주 물어보고, 사진도 찍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무거운 식기류나 쓰레기 버릴 때 편리하게 경사로도 곳곳에 잘 되어 있고, 수레도 높낮이까지 조절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주방 안에서 물을 많이 쓰니까 사실 예전엔 미끄러지기도 많이 했는데, 장화도 좋은 것으로 지급하고 바닥도 특수 처리를 해서 이제는 살짝 '미끌' 할 때는 있어도 넘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OO공장 구내식당 반장 A씨)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티스토리]

천안의 어느 하나의 공장 노동조합에서 하는 급식환경개선을 경기도교육청이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평균불용액이 3721억원에 달하는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밖에 지적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21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의 인건비 관련 불용액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1 지방교육재정 종합보고서〉

■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 비율은 2.59%로 전국 평균 2.03%, 도지역 평균 1.97%보다 높음
 - 성질별 불용액 중 인건비의 비중이 31.1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휴·복직, 명예퇴직 등
 현원변동을 고려한 인건비의 정확한 추계가 요구됨

종합해보자면 경기도는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을 크게 줄이고 그로 인해 전국에서 급식실에서 가장 많은 산재가 발생하는 교육청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다쓰지도 않고 남게 하면서 급식실 조리사 인력배치에는 여기서 우리가 소리높여 외쳐야 할 만큼 수동적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정말 불편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급식실 안전과 인력과 관련하여 손을 놓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을 규탄합니다.

기타 - 돌봄, 가사의 영역에서의 성차별

학교 길 교문 앞을 지키고 있는 건 여전히 엄마 혹은 할머니들입니다. 간혹 아빠들도 있지만요. 저희 급식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도 왜 남자선생님들은 안계시는 지 의아했습니다. 모성에 기대 사회돌봄체계가 낮은 결혼과 출생률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육아와 교육에 근육의 힘이 많이 필요하며 아빠들이 적합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 급식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솥들과 수십 개의 재료들을 옮겨담고 씻고 빠르게 움직이는데 수많은 근육의 힘이 필요한 데 가사 노동의 일부로 여겨져 남성 노동자가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안타까웠습니다. 교육공무직노조와 저희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유관단체들이 돌봄, 가사 노동의 업무 환경 개선에 힘을 쓰면서 이와 함께 성별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에도 관련 활동들을 함께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재가 크게 줄고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도 조리사 선생님들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밥을 먹으며, 학교 급식실이 일할 맛 나는 곳이 되고, 또 이 곳에서도 많은 남성 조리사선생님들을 뵈 날을 꿈꿉니다.



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토론 5

현장 토론

윤태호_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장

[현장 토론]

